

농업혁신·생명연장·탄소제로... 더 나은 삶 위한 기술 쏟아진다



“CES가 과거 기술과 기계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CES 2023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의 기술 트렌드로 헬스케어와 지속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이달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3’을 앞두고 매일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포스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경미디어그룹과 공동으로 기술 트렌드 분석을 진행한다. 포스텍은 CES 2023에 20학년 학부생 181명 전원을 파견하는 파격적인 시도에 나서기도 했다.

김 총장은 CES 2023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기술 분야로 헬스케어와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CES 2022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헬스케어 회사인 애벗(Abbott)의 기조연설이었다. TV나 DVD가 소개되던 행사에서 헬스케어가 소개된 것”이라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당연한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인간이 갖게 되는 관심은 자연히 건강과 장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T와 빅데이터, AI와 결합한 헬스케어는 이제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본 CES
삶의 질과 직결된 ‘인간 안보’ 화두
TV 대신 헬스케어회사 기조연설
20학년 전원 견학... 나만의 길 찾기

CES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게 됐다”며 “CES 2023에는 미국의 여러 헬스케어 기업과 함께 미국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를 아우르는 대형 병원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농기계의 테슬라’로도 불리는 존디어(John Deere)의 존 메이 최고경영자(CEO)의 CES 2023 키노트 연설에 주목했다. 자율주행 트랙터로 잘 알려진 존디어는 2019년부터 CES에 출품해 왔고, 전 세계 농기계시장 점유율이 32%에 달하는 기업이다.

김 총장은 “이런 회사가 전면에 서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중국 봉쇄 등 곡물 가격 상승의 다양한 국제적 정세 때문”이라며 “안전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려면 농업 혁신이 필요하고, 농업 혁신을 중요한 무대에 세운 것은 CES가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의 방향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

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총장이 주목하는 미래 기술 역시 인간을 향한 분야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의 경제·문화를 바꿔놓은 가운데 전염병의 대유행과 관계없이 진행돼 온 4차 산업혁명도 노동 시장을 뒤흔들면서 인간의 관심사 역시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과 장수의 가장 큰 해가 되는 것은 환경오염에 따른 새로운 질병,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 결핍,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등이 있다”며 “이들 분야는 단순히 바이오텔 환경과학 등 특정 부문에서만 다루지는 것이 아니라 IT나 소재, 화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탄소 감축은 인류 전체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아젠다로 국가 간 이해관계, 산업 생산성과 비용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측면만 고려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스텍은 CES 2023에 20학년 학부

생 전원을 파견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기술경연장인 CES 현장을 경험하도록 한 파격적인 시도라는 평가다.

김 총장은 “CES가 단순히 기업들의 최신 기술을 공개하는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제조업과 중공업에 IT와 로보틱스가 도입되고 자동화는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하는 등 여러 분야의 융합이 이뤄졌다”며 “CES는 이제 모든 산업과 인류의 삶 전반을 다루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CES에서 공개되는 것은 기업이 추구하는 가장 최선의 기술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과 접목해 어떤 분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텍은 CES 2023에서 포스텍 학생이 참여한 기업이 CES에 참가한 이후로 포스텍이 선정하는 100대 아시아 유망 기업에 뽑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포스텍은 ‘학생창업팀’이라는 행정 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창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이다. 학생창업팀의 신설 이전 연 평균 3.6건이었던 학생 창업 건수는 3년 만에 9.5건으로 크게 늘었다.

라스베이거스/최승진 기자



미라클레터가 뽑은 CES 트렌드

시각 장애인 길 안내하는 신발 만성통증 줄여주는 척추자극기

콘솔 게임의 대명사인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이 곧 자율주행 차량 안으로 들어온다.

또 점령을 활용해 만성 통증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치료 기술이 출현한다.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3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기술 트렌드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라클레터는 CES 2023에서 등장한 세 가지 기술 트렌드로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의 진화 △친환경을 넘어선 에너지 저장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휴먼테크 부상 등을 꼽았다. 우선 기술의 융·복합이 돋보인다. 소비자들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더 이상 한 가지 제품, 한 가지 기술만으로 승부를 볼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표 정보통신기업인 소니는 자동차 업체인 혼다와 손을 잡고 양산을 목표로 한 첫 번째 전기차를 4월(현지시간) CES에서 선보인다. 특히 이들은 합작사인 소니혼다모빌리티를 설립하고 두 회사의 장점을 엮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가와니시 이즈미 소니혼다모빌리티 사장은 앞서 “운전에 대한 즐거움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5가 차량에 통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헬스케어 기업에 버섯은 만성 통증 완화를 위한 비침습적 척추신경조절자

극기를 이룬 전시회에서 선보인다. 미세한 전류를 이용해 통증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척수를 거쳐 뇌로 이동하는 통증 신호를 감소시키는 척추신경조절 치료법이다.

ESG(환경·책임·투명경영) 물결은 ‘친환경을 넘어선 에너지 저장’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ESG는 단순히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데 그쳤는데, 올해부터 에너지 저장이라는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술의 부흥’도 눈에 띈다. 일본 혼다의 벤처기업인 아시라세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지원하는 웨어러블 내비게이션 솔루션을 이번 CES에서 공개한다. 신발에 모션 센서와 GPS를 달아 원하는 목적지를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하고 걷기만 하면 된다. 신발에 달린 모터가 방향을 전환할 때마다 알람을 보낸다. 또 한국의 대표 스타트업 ‘닷’은 iOS 앱과 연동한 시각장애인용 점자 패드를 공개해 시선을 끌었다.

미라클레터는 매일경제의 대표적인 뉴سته대로 현재 구독자가 7만명이다. ‘미라클레터를 읽는’은 직장인들의 교과서’라는 모토로 주 3회 이메일을 통해 전 세계의 트렌드를 전달하고 있다.

검색창에 미라클레터를 입력하거나 QR코드를 통해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 라스베이거스/이상덕 특파원



포스텍 교수진, 신기술 의미·전망 짚어드려요

매경미디어그룹과 공동 취재

매경미디어그룹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 2023에서 포스텍 연구진과 공동취재팀을 구성했다.

지난해 시작된 매경미디어그룹과 포스텍 간 협업을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

를 독자들에게 한층 심도 깊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경미디어그룹과 포스텍은 2021년 업무협약(MOU)을 맺고 CES 2022에서도 공동 취재·연구 활동을 펼쳤다. CES 2023을 앞두고 포스텍 교수진은 매경이코노미 특별판으로 제작된 ‘한 눈에 보는 CES 2023’에서 보다 깊이 있

는 분석 리포트를 공개했다.

노준석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교수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의 인터페이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나노 기술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고, 김종규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시대를 이룰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정우성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장)는 ‘인간 안보’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 다뤘고, 국종성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공학’에 대해 해설했다. 조민수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에 대해 분석했다.

라스베이거스/최승진 기자